

# 외국인 유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학습자 요구조사 분석

- 위덕대학교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기옥\*\*

- 차례 -

1. 서론
2.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3. 학습자 요구조사 분석
  - 3.1. 개인 배경 관련 부분 분석
  - 3.2. 한국어 관련 부분 분석
  - 3.3. 대학생활 관련 부분 분석
  - 3.4. 기타 관련 부분 분석
4. 결론

##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경주 위덕대학교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자 요구를 조사,

\* 이 연구결과물은 2017학년도 위덕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본 연구는 2017년의 요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고, 2018년, 2019년도의 추가 조사 내용은 다음 연구에서 다룰 예정이다.

\*\* 위덕대학교 자율전공학부 초빙교수. gohong@uu.ac.kr

분석하여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생활의 적응도와 만족도를 높이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위덕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고, 면담을 통해 유학생 개인배경, 한국어 관련 부분, 대학생활 관련 부분, 기타 관련 부분으로 36항목에 대해 73명(남 25명, 여 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유학생들의 요구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 비교과과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위덕대학교 유학생의 97%는 베트남 학생으로 베트남 출신 학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진학 학과는 경영학도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조사 분석을 통해 베트남 학생의 대부분이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대학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학사과정과 비교과과정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외국인 유학생, 베트남 유학생, 학습자 요구조사, 유학생 관리프로그램

## 1. 서론

본 연구는 현재 경주 위덕대학교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자 요구를 조사, 분석하고 이를 학생들에 대한 지도, 교육, 관리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 전반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유학생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이를 통해 위덕대학교 유학생의 유학생생활 적응을 돕고, 나아가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것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는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인 학생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경주, 포항지역에 생활 기반을 둔 베트남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생

생활 적응을 돕는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학습자 요구조사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를 통해 유학생 유학생의 학사 지도·관리·교육 프로그램 마련하고, 유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졸업 이후의 취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개별적인 프로그램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유학생의 학습자 요구 분석 조사, 분석, 적용, 이후의 평가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자 요구조사, 분석 작업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유학생의 한국생활, 대학생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며,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 2. 선행 연구 및 연구 방법

기존의 대부분의 유학생 관련 연구는 한국어 의사소통(한국어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능력 배양과 연관된 연구 위주로, 중국, 일본이나 영어권 출신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대도시 중심에 거주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강현화(2007)의 연구는 문화 영역 교재 개발을 위해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학위 과정, 비학위 과정별로 문화 요구조사, 전공별로 문화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문화 관련 교재 개발 시 참조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또한 김경숙(2010)의 연구에서도 문화 교육을 위한 학습자 요구 조사 분석을 하여 접근하고 있다. 권은영(2013)은 외국인 유학생 교양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학습자 요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외에도 오기노 신사쿠(2015), 이선희(2012), 조항록(2005), 주희정(2013)의 연구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요구조사 분석 내용을 다루고 있다.

권양이(2008)의 연구에서는 중앙아시아 출신 외국인 유학생의 초기 유학생생활 적응을 위한 분석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네 명의 중앙아시아 출신 유학생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초기 유학생생활 적응을 위한 요구조사를 정리하였다. 이익수(2009)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 적응을 위한 요구조사, 실태조사의 내용을 다루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습자들의 요구조사는 학습능력 배양을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연구 대상 또한 중국, 일본이나 영어권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많으며, 중앙아시아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요구조사는 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설문 분석 대상자 수가 작은 점이 아쉽다.

본 연구에서는 위덕대학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트남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업을 포함한 생활 전반에 관한 학습자 요구조사 분석을 하려 한다. 베트남 출신 유학생들은 대부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유학생생활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놓인 유학생들의 요구조사는 이들의 유학생을 안정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전제 조건일 것이다.

따라서 위덕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들 대상으로 교수와의 면담을 통해 설문 조사를 2017년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진행하였다. 유학생의 설문 항목은 개인 배경 관련 부분(14항목), 한국어 관련 부분(10항목), 대학 생활 관련 부분(10항목), 기타 관련 부분(3항목)으로 나뉘 총 36항목에 대해 조사하였다. 설문 항목은 객관식과 주관식형이고, 질문에 따라 한 항목에 중복 선택이 가능하였다. 또한 선택 항목이 '예' 혹은 '아니요'라는 답변에 따라 다음 질문을 따라가는 항목 또한 있었다. 질문 항목에 표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결과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외국인 학생 중 총 73명(남 25명, 여 48명)이 설문 조사에 응하였다.

조사를 실시한 2017년 위덕대학교 소속 유학생은 283명이며, 그 중 261

명은 베트남 학생이다. 중국 출신 학생은 19명, 일본 출신 학생은 3명이다. 또한 2017년 2학기에 교환학생으로 와있는 학생들은 7명이다. 이들은 몽골 출신 학생 4명, 대만 1명, 일본 출신 2명이다.

283명의 유학생 중 100명은 국제교류원에 소속되어 한국어 과정 수업을 받고 있었으며, 183명 중 3명은 대학원, 나머지는 대학 학사 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었다. 학사 과정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경영학(94명) > 외식산업(24명) > 보건관리학(16명) > 일본언어문화학(12명) > 영어학(11명) > 자율전공(7명) > 철강 IT(6명) > 에너지전기학(4명) > 그린에너지공학(3명) > 사회복지학(1명) 등의 순으로 학과를 선택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

조사를 통해 학사 과정에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후 직업 선택과 연관된 측면이 크다.

### 3. 학습자 요구조사 분석

#### 3.1. 개인 배경 관련 부분 분석

응답자 73명 중 71명(97%)은 베트남 학생이고, 2명은 중국 학생이었다. 설문 항목에는 있었지만 일본과 기타 국적의 학생은 없었다. 이를 통해 위덕대학교 유학생의 상당수가 베트남 학생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응답자 중 여성이 67%(48명)로 남성보다 많았다. 응답 학생의 43%(32명)는 2학년, 35%(26명)는 1학년, 16%(12명)는 3학년, 4학년은 6%(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2017년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고, 2019년 현재에도 베트남 출신 외국인 유학생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몽골

출신 유학생도 교환학생을 포함하여 6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 베트남 학생: 71명, 중국 학생: 2명
- 남성: 25명, 여성: 48명
- 1학년: 26명, 2학년: 32명, 3학년: 12명, 4학년: 3명

외국인 학생의 거주 지역은 응답자의 59명(81%)은 경주, 14명(19%)은 포항을 답해 포항 지역보다는 학교를 주변으로 경주 지역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 대부분인 81%(59명)가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다. 외에도 주택(9명, 12%), 기숙사(2명, 3%) 등도 조사되었다. 학생들이 주거지로 원룸을 선호하는 이유는 아르바이트와 같은 경제 활동을 병행해야 하므로 출입 시간을 통제하는 학교 기숙사는 생활하기에 무리가 있고, 혼자서 생활하기 보다는 형제, 친인척과 함께 생활하므로 원룸을 선호한다고 답하였다.

- 경주 거주: 59명, 포항 거주: 14명
- 원룸 거주: 59명, 주택 거주: 9명, 기숙사 거주: 2명, 기타 거주: 3명

학생들의 통학 시간은 30분~60분(67%, 49명) 정도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10분~30분 미만은 32%(23명), 10분 미만은 1%(1명), 1시간 이상은 0%(0명)로 조사되었다. 통학 수단으로는 버스를 이용한 통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97%(71명), 도보 3%(2명)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가장 주요한 통학 수단이 버스는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개선되어야 했으면 하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생들이 버스의 배차 간격이 길고, 버스가 복잡해서 이용하기에 불편하여 통학 수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 통학시간: 30~60분 미만(49명) > 10~30분 미만(23명) > 10분 미만(1명) > 1시간 이상(0명)
- 통학 수단: 버스(71명) > 도보(2명)

학생들의 95%(69명)는 수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수업을 마치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다음 날 새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르바이트 시간은 개별마다 차이가 있지만 응답에 따르면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2~3시까지 개인별로 5시간 이상씩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다음 날 오전 일찍 시작하는 수업과 5시 이후에 마치는 수업에는 참석하기가 힘들고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것에서의 어려움이며 학사 과정에도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이러한 생활 상황을 반영하여 수업 시작과 수업 종료 시간을 배려하여 시간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종은 식당에서 일하는 경우가 99%(68명)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한국 음식을 메뉴로 하는 다양한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기준에는 특별한 것은 없었으며 아르바이트 공지가 나면 본인의 거주지역과 이동이 편리한 곳을 선택하여 아르바이트를 한다.

- 아르바이트 여부: 예(69명), 아니요(4명)
- 아르바이트 장소: 식당(68명), 기타 (1명)

졸업 후 희망 취업 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에서의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53%(39명), 베트남은 44%(32명)로, 기타 지역은 3%(2명)로 응답자 중 중국 학생들 2명은 모두 중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했다. 이에 비

해 베트남 학생들은 과반수는 한국에서 취업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한국기업이나 타 업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48%(35명), 베트남에서의 한국기업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36%(26명), 베트남에서 베트남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7%(5명), 기타가 9%(7명)로 나타났다. 이러한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지도를 할 때 유관기관으로의 연결을 고려한다면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 취업 희망 지역: 한국 39명, 베트남 32명, 기타 2명
- 취업 희망 유형: 한국의 한국기업 35명, 베트남의 한국기업 26명  
베트남의 베트남 기업 5명, 기타 7명

베트남 유학생 중에서 출신 지역이 베트남 중부인 학생 52%(36명), 북부 41%(28명), 남부 7%(5명)로 조사되었는데 중부와 북부 지역의 출신 학생이 많으며 이에 비해 남부는 이에 비해 적은 수이다. 중부 지역에서 하딩, 응에안 지역이 많으며, 북부 지역에서는 하이쯔영, 하노이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인척 또는 같은 고향 선후배가 우리대학에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69%(50명)가 우리대학에 동향의 지인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다른 질문 항목에서 위덕대학교를 알게 된 경로 또한 주변 지인, 선후배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은 것과도 연관이 있으며 이는 이후 학생들의 유치에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 학생들이 인맥을 통해 정보를 얻고 이것이 대학 선택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지인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 유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 베트남 유학생 중에서 출신 지역: 베트남 중부 36명, 북부 28명,

- 남부 5명
- 중부 지역: 하딩, 응에안 지역 등
- 북부 지역: 하이쯔영, 하노이 지역 등
- 동향 지인 유무: 유(有) 50명, 무(無) 22명

### 3.2. 한국어 관련 부분 분석

유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운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1개월~6개월 미만 총 74명 중 1명, 6개월 이상~1년 미만 14명, 1년 이상~2년 미만 52명, 기타 4명이 답변을 했다.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이 되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어 학습 기관은 응답자 63명이 위덕대학교 국제교류원을 선택하였다. 그 외에 베트남 현지 교육 기관(21명), 대학교 수업(11명), 기타(2명)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는 주변의 아는 사람들에게 배웠다는 의견도 있었다.

- 한국어 학습 기간: 1년 이상~2년 미만(52명) > 6개월 이상~1년 미만(14명) > 기타(4명) > 1개월~6개월 미만(1명)
- 한국어 학습 기관: 국제교류원(63명) > 베트남 교육 기관(21명) > 대학교 수업(11명) > 기타(2명)

유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이유는 '한국 관련 기업에 취업을 위해서' 44%(39명)가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아서'가 26%(23명),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서' 25%(22명), 기타 5%(4명) 순으로 의견이 나타났다. 기타 의견에는 '한국음식을 만들고 싶어서'라는 의견이 있었다.

1일 한국어 학습 시간은 52%(38명)가 10분~30분 미만으로 한국어를 개별적으로 공부한다고 대답하였고, 30분~1시간 33%(24명), 하지 않음 11%(8명), 1시간 이상 4%(3명)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은 한국어 학습 시간은 여러 생활 조건으로 1시간 미만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어 학습 이유: 한국어 관련 기업에 취업을 목적(39명) > 한국 문화에 관심(23명) > 한국에 거주 목적(22명) > 기타(4명)
- 한국어 학습 시간: 10분~30분 미만(38명) > 30분~1시간(24명) > 하지 않음(8명) > 1시간 이상(3명)

유학생들이 한국어 공부 중 힘들어 하는 영역은 읽기(5%, 4명) 영역을 제외하고는 말하기(35%, 30명), 쓰기(35%, 30명), 듣기(25%, 22명) 영역은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그리고 한국어 학습에서 향상되었으면 하는 영역은 읽기(35%, 25명), 말하기(28%, 20명), 듣기(26%, 18명), 쓰기(11%, 8명) 순으로 나타났다. 읽기 영역은 다른 영역에 비해 공부하기에 힘들어 하지는 않지만 잘했으면 하는 영역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읽기 영역은 단어를 찾아 이해하는 방법으로 접했을 때 정확하게 이해하지는 못 하더라도 대략의 의미 유추를 할 수 있어 듣기나 말하기, 쓰기에 비해 학습하는 것의 부담은 작으나 대학 수업이 교재를 중심으로 내용을 읽어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기본이므로 잘했으면 하는 영역으로 설문 항목에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 어려운 학습 영역: 말하기(30명), 쓰기(30명) > 듣기(22명) > 읽기(4명)
- 잘하길 희망하는 학습 영역: 읽기(25명) > 말하기(20명) > 듣기(18명) > 쓰기(8명)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응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2%(59명)가 응시해본 경험이 있으며, 18%(13명)는 아직 한 번도 시험을 쳐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픽 시험 취득 급수는 53%(38명)에 해당되는 학생이 3급 미만으로 나타났고, 3급 23%(16명), 4급 17%(12명), 5급 7%(5명)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토픽 시험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공부 여건이 안 되거나 응시 과정, 응시료 등의 부담으로 시험을 적절히 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토픽 응시 여부: 유(59명), 무(13명)
- 토픽 취득 급수: 3급 미만(38명) > 3급(16명) > 4급(12명) > 5급(5명)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에서 힘든 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43명이 공부 시간 부족을 들었고, 자료 부족 10명, 도움을 줄 교사 부재 6명, 기타를 16명이 선택을 하였다. 학생들이 공부 시간이 부족한 것은 학습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하는 학습 여건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보인다. 기타 의견으로는 '인터넷 환경과 같은 학습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아서, 경제적 부담' 등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희망하는 한국어 학습 방법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한국인과의 대화(4명), 한국 드라마(6명), 영화(5명), 뉴스(3명), k-pop(2명) 등의 매체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하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을 주었다.

- 한국어 공부에서 힘든 점: 공부시간 부족(43명) > 자료 부족(10명) > 교사 부족(9명) > 기타(16명)

### 3.3. 대학생활 관련 부분 분석

외국 학생들의 위덕대학교 진학 정보를 묻는 질문에는 위덕대학교 졸업 선배의 소개가 전체 62%(46명)로 가장 많았다. 이는 학생들이 위덕대학에 대한 정보를 주변의 지인을 통해 많이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이다. 앞서 우리대학교에 재학 중인 지인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많은 학생들이 '있다'라고 대답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학생들이 진학 학교를 선택할 때 이를 중요한 정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람 관계를 활용한 학생 유치가 효율적 방안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인터넷 정보 검색(18%, 13명), 베트남 현지의 한국어 학원(15%, 11명), 기타(5%, 4명) 등의 경로를 통해 위덕대학교로 진학하였다.

또한 대학생활에서 필요한 정보 취득 방법을 묻는 질문에서는 국제교류원을 통해서가 50%(38명)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국제교류원이 유학생에게 실질적인 행정업무나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주변의 선배나 친구를 통해 40%(30명), 지도교수 5%(4명), 학과사무실 5%(4명) 순으로 대학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설문 분석으로 대학의 다양한 통로를 통해 학생들에게 대학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대학 본부, 학과, 기관 등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 프로그램의 체계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진학 정보 취득방법: 졸업선배(46명) > 인터넷(13명) > 현지 학원(11명) > 기타(4명)
- 대학생활 정보 취득방법: 국제교류원(38명) > 선배나 친구(30명) > 학과사무실(4명), 지도교수(4명)

외국 학생들이 대학에서 자주 이용하는 시설은 강의실이 응답자의 42%(41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식당 33%(32명), 도서관 23%(22명), 기타 2%(2명)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의 대학교에서 활동 공간이 수업과 식사, 공부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대학에 요구 사항에서는 '수업이 비는 공장 시간에 갈 만한 장소 제공'이 조사되었는데 학생들에게 활용 공간을 더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유학생들이 대학생활 중 가장 힘든 것은 수업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꼽았다. 응답자 중 40%(31명)에 해당하는 학생이 수업의 어려움을 꼽았는데 이는 한국어가 미숙하여 생기는 문제이고, 한국어가 좀 더 능숙해지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시간표 짜기와 같은 행정 업무 처리의 어려움 32%(22명), 보고서 및 프레젠테이션과 같은 과제의 어려움 25%(17명), 기타 3%(2명)로 답변을 하였다. 이와 관련된 학생들의 어려움은 이후 학생들을 위한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수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법, 과제 수행 방법 등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 대학에서 이용 공간: 강의실(41명) > 식당(32명) > 도서관(22명) > 기타(2명)
- 대학생활의 어려움: 수업의 어려움(31명) > 행정 업무(22명) > 과제(17명) > 기타(2명)

전공 공부의 만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57%(41명)의 학생은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43%(31명)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만족하는 이유에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는 항목이 만족하는 학생 중 49%(19명), 적성에 맞다 23%(9명), 등록금이 싸다 23%(9명), 기타 5%(2

명) 순으로 답하였고, 이유를 답변하지 않은 학생도 있었다. 등록금이 저렴한 것은 전공과의 관련이 크게 없는 항목으로 보이지만 학생들은 경제적인 부담이 대학 교육의 만족도와 연결하여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전공 공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학생들의 답변 이유는 수업내용이 어려워서 힘들다 77%(31명), 적성에 맞지 않다 10%(4명), 등록금이 비싸다 5%(2명), 기타 8%(3명) 등을 꼽았다.

- 전공 공부의 만족 여부: 만족(41명) > 불만족(31명)
- 만족 이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다(19명) > 적성에 맞다(9명), 등록금이 싸다(9명) > 기타(2명)
- 불만족 이유: 수업내용이 어렵다(31명) > 적성에 맞지 않다(4명) > 기타(3명) > 등록금이 비싸다(2명)

대학에서 듣고 싶은 수업을 묻는 질문에는 한국어 관련 수업 75%(57명), 컴퓨터 활용 관련 수업 15%(11명), 한국어 외에 다른 외국어 5%(4명), 기타 관심이 있는 다양한 과목 5%(4명) 순으로 답변을 하였다. 2017년 1학년을 제외하고는 한국어 외의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으므로 한국어는 전공 수업을 위해 기본 필수 항목이므로 이와 한국어 관련 수업을 많이 선택하였고,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 또한 토픽이나 한국어 교육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한국어를 학습의 기본 항목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한국어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컴퓨터 관련 수업은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관련 과제를 위해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베트남 학생들을 비롯해 외국학생들이 컴퓨터 활용 능력이 취약함을 면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활과 관련해 요구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기를 바란다는 답변이 72%(50명)로 가장 많았다. 외에도 대학에서의 각

종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7%(5명), 수업이 없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3%(2명), 지도교수와 학교 적응, 전공, 적성, 취업 등에 대해 수시로 상담했으면 좋겠다 9%(6명), 기타 9%(6명)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에는 ‘교통이 불편하니 도움을 주면 좋겠다, 수업시간이 늦춰졌으면 좋겠다’ 등이 있었다. 조사 결과를 통해 외국인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을 습득하기를 원함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해 주기 위한 학습 코칭의 단계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학습 희망 과목: 한국어(57명) > 컴퓨터(11명) > 타 외국어(4명), 기타(4명)
- 대학생활에 관해 요구 사항: 공부 방법(50명) > 교수와 상담(6명), 기타(6명) > 활용 공간(2명)

추가로 위덕대학교의 좋은 점을 주관식 항목으로 정하여 질문하였는데 답변으로 같은 국적이 많다 19명, 친구가 많다 4명, 선생님이 친절하다 36명, 교육 관리를 잘 해준다(관리기관이 좋다) 2명, 외국인 학생에게 도움을 많이 준다 4명, 깨끗하고 시설이 좋다 3명, 장학금이 많다 3명, 학비가 비싸지 않다 11명, 배우고 싶은 전공이 있다 1명, 식당이 싸다 3명 등으로 조사되었다.

반대로 위덕대학교의 아쉬운 점을 묻는 주관식 항목에는 교통 문제를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언급하였다. 대부분의 외국인 학생이 버스를 이용하여 통학을 하는데 통학 시간에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복잡하고, 버스 대기시간이 길어 힘들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수업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한국 학생과 친구하기가 힘들다, 아르바이트를 가는데 수업이 늦게 끝나서 힘들다는 답변이 나왔다. 이러한 답변은 외국인 학생이 생각하는

위덕대학교의 장·단점으로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을 유지해 나간다면 더 많은 외국인 학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학생을 위해 원하는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는 ‘토픽을 관련 동아리, 한국어 공부 동아리, 외국인 학생만을 위한 동아리, 한국인 학생과 함께 하는 동아리, 봉사활동’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4. 기타 관련 부분 분석

기타로 한국생활과 관련된 질문을 세 가지 하였다. 외국학생들은 한국 생활에서 힘든 점을 응답자 38%(28명)가 아르바이트를 꼽았다. 학습과 일을 병행해야하는 특성상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들어 하는 학생이 많은데 이에 대한 부담이 아르바이트라는 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요즘은 포항, 경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많아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일도 더 힘들어졌다고 하고, 이 때문에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나오는 상황이었다. 또한 베트남 학생의 대부분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지고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학사과정 전반에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부담 25%(19명), 한국문화에 대한 부담 21%(16명), 병원 등 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 15%(11명), 기타 1%(1명) 등을 선택하였다. 한국문화에 대한 부담은 한국문화를 잘 몰라 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한 부담, 한국문화를 다시 익혀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 자신과 맞지 않은 한국문화에 대한 부담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러한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익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나 학교생활을 하면서 익히는 경우가 75%(57명)로 가장 많았으며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이 20%(15명), 주변의 베트남 친구를 통해서 4%(3명), 기타 방법(영화, 드라마, 한국친구 등)이 1%(1명)로 나타났다. 외국 학생들이 한국

생활,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습득이 필요한데 한국 문화를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과나 대학 차원의 체계적 프로그램을 마련해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이 배우길 바라는 한국문화로는 한국음악, 영화 등과 같은 한국 대중문화를 63%(47명)로 꼽았으며, 외에도 전통문화 30%(22명), 기타(음식 등)를 7%(5명)로 선택하였다. 또한 외국인 학생이 학습 방법으로 대중문화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방법을 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법에도 적용하면 효율적일 것이다.

- 한국생활에서 힘든 점: 아르바이트(28명) > 대학생활(19명) > 한국 문화 습득(16명) > 병원 등의 공공시설 이용(11명) > 기타(1명)
- 한국문화 이해 방법: 생활하면서 이해(57명) > 학교(15명) > 베트남 친구(3명) > 기타(1명)
- 배우길 바라는 한국문화: 대중문화(47명) > 전통문화(22명) > 기타(5명)

## 4. 결론

본 연구는 경주 위덕대학교에 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습자 요구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학생들에 대한 지도, 교육, 관리 등 전반적인 학교생활 전반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유학생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위덕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를 파악하고, 면담을 통해 유학생 개인배경, 한국어 관련 부

분, 대학생활 관련 부분, 기타 관련 부분으로 36항목에 대해 73명(남 25명, 여 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유학생들의 요구를 조사,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과, 비교과과정을 보완하여 이들의 대학생활, 한국생활의 적응도를 높일 계획이다. 2017년을 기준으로 위덕대학교 유학생의 97%는 베트남 학생으로 베트남 출신 학생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진학 학과는 경영학도가 높은 비중을 보였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출신지역과 타 유학생의 관계를 조사해보니 베트남의 북부, 중부지역 출신이 남부 지역에 비해 많으며 유학생 간에 가족, 친척, 동향인(同鄉人) 등 아는 사람을 통해 대학 정보를 구하고, 대학을 선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향후 베트남 유학생을 유치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학생을 잘 관리하면 베트남 학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습자 요구조사 분석을 통해 베트남 학생의 대부분이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으므로 대학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학사과정과 비교과과정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위덕대학교 유학생의 유학생생활 적응을 돕고, 나아가 학생들의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인 학생의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덕대학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학습 적응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며, 더불어 경주·포항지역 타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동향 파악과 유학생의 요구 조사, 분석을 병행하며 경주·포항지역 유학생의 생활 적응도를 높여, 더 많은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 [ABSTRACT]

### Analysis of Learner Needs for International Student Management Program -For students studying at Uiduk University

Hong, Gi-Ok(Uid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learner's needs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Gyeongju Uiduk University. For this purpose, we grasped the actual status of foreign students of Uiduk University and interviewed 73 students (25 males, 48 females) for 36 items including personal background, Korean language, college life, and other related parts. Investigate.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the needs of international student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is, the curriculum and comparative courses for foreign students are supplemented to enhance their adaptability to college life and Korean life. As of 2017, 97% of Uiduk University's international students were Vietnamese students, with Vietnamese students taking an absolute share, and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howed a high proportion. The survey found that the majority of Vietnamese students have both academic and economic activities, so the university needs to find a bachelor's degree and a comparative course that reflect this situation.

**Key word** : foreign students, Vietnamese students, student needs survey, International Student Management Program

## [ 참고문헌 ]

## □ 단행본

- 강현화, 『한국어 확산 문화 프로그램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1.  
 김중섭 외, 『국제통용 한국어교육 표준모형 개발』, 국립국어원, 2010.  
 홍효정 외,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 409-422면.

## □ 논문 및 기타 자료

- 강현화, 「외국인 학습자의 문화 요구 조사-문화교재 개발을 위해」, 『외국어로  
 서의 한국어 교육』 31, 2006, 99-128면.  
 권양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초기 적응에 관한 질적 탐색」, 『한국교육  
 학연구』 제14권, 1호, 2008, 303-333면.  
 권은영, 「외국인 유학생 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 『교양교육연구』 제7권, 제2  
 호, 2013, 373-398면.  
 김경숙,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문화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21(4), 2010,  
 77-98면.  
 오기노 신사쿠, 「일본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학습자 요구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5, 66-77  
 면.  
 이선희,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적응 과정에서의 상태 학습목표지향성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제26권, 2호, 2012, 101-116면.  
 이익수,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이 학습동기 및 성취에 미치는 영향」, 『경상  
 논총』 제2권1호, 2009, 273-286면.  
 조항록, 「한국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육의 새로운 방향」, 『한국어교  
 육』 16(2), 2005, 279-305면.  
 주휘정,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문제연  
 구』 제36권, 2013, 135-159면.  
 홍효정 외, 「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학습전략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사례 연구」, 『교양교육연구』 7(6), 2013, 561-587면.

접수일 : 2019. 11. 22 총평일 : 2019. 12. 18 게재확정일 : 2019. 12. 29